

코트디부아르 궁금한 이야기

카카오 최대 수출국, 코트디부아르

한국에서 유명한 한 초콜릿이 아프리카 가나와 이름이 같기에 많은 분들이 '카카오' 하면 가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카카오 생산 및 수출국은 엄연히 코트디부아르로 전 세계 카카오 생산량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카카오 최대 생산국인 코트디부아르의 초콜릿 가격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초콜릿 가공 기술이 부족해 카카오를 수출하고 가공된 초콜릿을 다시 수입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브미 초콜릿'을 외치던 70년대의 우리나라처럼 코트디부아르 아동들에게 초콜릿은 접하기 힘든 간식입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주요 경제 성장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생산업은 한 때 과도한 투자로 경제침체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내전까지 더해져 아직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트디부아르는 카카오 수출을 통해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선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아프리카의 국제적인 허브 도시로 '아프리카의 파리'라고도 불리는 코트디부아르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회원님께 알려드립니다.

밀알복지재단에 도착한 회원님의 편지는 번역과정을 거쳐 2017년 1, 5, 9월에 사업장으로 전달 될 예정입니다. 특별한 날에 편지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경우 일정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COTED'IVOIRE BUSINESS NEWS

코트디부아르 사업장 소식

세 번 째 이 야 기



꿈꾸는 새싹들 이야기



음악 수업

벨빌 초등학교에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가 되면 경쾌한 리코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음악 수업에 참여하는 30명의 아동들은 리코더로 간단한 멜로디 연주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리코더라는 악기 자체가 생소한 아동들에게 연주법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기모임을 통해 교사를 교육시키고, 교육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쉽고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기본적인 음악 소양을 갖추어 멋진 연주를 뽐낼 수 있는 날을 기대해봅니다.



미술 수업

코트디부아르는 미술 수업이 정규교육 과정에 포함되지 않아 아동들이 미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벨빌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 미술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들이 자신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아동들은 눈을 반짝이며 자신들의 소망과 바람을 그림에 담습니다. 아동들이 그런 꿈들이 가까운 미래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수업

2015년부터 시행된 태권도 수업은 벨빌 초등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을 진행하여 태권도 수업을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던 아동들이 더 자주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이 늘어난 만큼 아동들의 태권도 실력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자신의 성장을 직접 확인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태권도 승단심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은 승단심사를 통해 자부심과 올바른 자세를 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종이접기 수업

종이접기가 재조명 된 한국과 같이 벨빌 초등학교 또한 그 인기가 뜨겁습니다. 올해부터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두뇌발달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종이접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동들은 네모난 종이 다양한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보며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아동들은 종이접기 방법과 순서를 빠르게 익히고 있어 교육적인 효과도 매우 큼니다. 수업을 통해 기분 좋은 변화가 눈에 띄는 만큼, 아동들의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됩니다.



캠프

매년 개최되는 캠프는 학교의 모든 아동들이 설렘 속에 기다리는 연중행사입니다. 이번 캠프는 특별히 학교에 방문한 프랑스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물감을 이용하여 미술놀이 하고, 색종이로 사다리를 만드는 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캠프에서 만든 사다리는 교실 벽면을 꾸미는데 사용되어 즐거웠던 지난 캠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온 편지



코트디부아르 아동을 후원해주시는 회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2월 코트디부아르에 파견되어 손희실 프로젝트 매니저를 도와 결연업무를 하고 있는 서요셉 봉사단원입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서 상아 거래의 중심지로 우뚝 서며 건국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가난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동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많은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밀알복지재단 코트디부아르 사업장에서는 벨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태권도,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내일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게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이 간직하고 있는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 벨빌 초등학교

서요셉 봉사단원 드림



새싹들의 다음이야기



태권도 승단심사

아동들의 참여도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 승단심사 예정



운동회

캠프 이외의 학교 자체 행사로 운동회 개최 예정



뜨개질 수업

다양한 뜨개질 도안을 이용하여 수업 진행 예정